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



송은희*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억

20년 전 공공도서관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 책을 보기위해서가 아니라 시험기간 '벼락공부'를 위해 가끔 찾곤 했던 곳. 모처럼 책을 빌리려면 홀로 자료실과 열람실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수 백석의 열람 좌석을 가로질러 한 귀퉁이에 자물쇠로 꼬옥 잠긴 자료실 문을 열어야만 가능했다.

자유롭게 책을 고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열쇠를 들고 내가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 직원 눈치에 얼른 목적했던 책만을 한 권 집어 나오면, 서둘러 자료실 문을 잠그고 바삐 걸어 나가는 직원을 따라가 대출서류를 한 장 작성해야 겨우 책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눈치를 보가며 겨우 빌린 책의 상태가 흠족하지 않을 때면 '역시나' 하는 기분으로 웬만하면 공공도서관에선 책을 빌리지 말아야지 했던 기억이 있다.

10년 전, 나는 작은 시의 공공도서관 직원이 되어 있었다. 3층 건물 중 2, 3층은 공부하는 열람실로, 1층의 반은 사무실로, 나머지 반은 시청각실과 자료실로 만든 기가막힌 공간 배치가 일반적이던 시절. 1990년대 초 개관한 대부분의 시·군 지역 도서관은 도서관 건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어졌고 사서 1명과 기타 직원 4명을 배치하는 것만으로 훌륭하게 도서관을 운영하길

* 평택시립평성도서관 사서, ptsongeh@paran.com

요구하는 때였다.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일단 ‘공공도서관’이라는 건물이 생기고 사서를 배치해 준 것만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사서들에겐 희망의 시기였다. 당시 사서들은 공부방 중심으로 지어진 건물을 자료실 중심의 도서관으로 바꾸기 위해 동료 직원과 관리자를 끊임없이 설득하였고 자료에 대한 질적·양적 확대는 물론 독서모임 창단, 예산 지원 없는 독서지도 외 다양한 행사들을 틈틈이 개최하여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유도하곤 했었다. 희망의 크기만큼 넘치는 이용자 요구사항은 사서의 자기반성과 도서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공부방 이용에 익숙한 주민과 선진도서관에 목 말라하는 이용자를 모두 아우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던 기억이 있다.

2006년의 공공도서관을 본다. 어느 도서관이든 복적이지 않는 곳이 없다. 학부모와 아이들, 사회 전반이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안다. 적극적으로 사서에 다가가고 도서관의 자료, 시설들을 활용할 줄 알며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우리의 도서관은 지난 20년간 단 한번의 후퇴도 없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고, 어느 새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휴식 공간이자 오락 공간, 재활과 성장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20년 전, 다시 찾고 싶지 않았던 그 부담스런 자료실이 아니라 가고 싶고, 누리고 싶은 도서관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새로 개관하는 많은 공공도서관이 사서들의 축적된 경험을 반영하여 도서관다운 설계를 하고 좋은 시설, 다양한 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랬더니 더욱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는다. 도서관은 일반 시장 기능과 달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곳이고 지식·문화에 대한 수요는 공급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지금의 복적이는 도서관은 그 만큼 주민이 공공도서관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그 수가 부족하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사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꿈꾼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의 정보 네트워크는 사람들에게 정보, 지식을 습득하는 채널을 넓혀주고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지만 개인적 활동이 늘어난 만큼 그 안의 내용성, 감성적 고민, 사람과의 교류, 만남에는 더욱

목마른 환경이 되었다. 이 목마름의 바람직한 해결 창구가 바로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아닐까. 도서관은 적절한 책과 프로그램으로 지역민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타인을 이해하게 하며 사람 사이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효율적인 창구이다. 따라서 사서는, 이제까지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교육·정보·문화체협의 공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전자를 아우른 대화와 교류의 공간이길 원하며 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알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사서들의 역할도 조금씩 변화해 왔다. 충실한 목록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활용에 열중하던 시기에서 점차 지역의 교육기관, 사회시설과의 협력적 공존, 우리나라만의 공공도서관 문화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지 등 고민의 내용도 바뀌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거듭 해왔던 것에 비해 아쉽게도 사서의 배치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각종 사무와 단순 업무에 쫓기다보니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많은 지자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발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여전히 근무의 시간에 고민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공공도서관이 있기를 바란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휴일과 퇴근 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만큼 공공도서관은 누리고 싶은 생활 속 공간인 것이다. 20년 전, 열람실과 자료실을 혼자 지키던 도서관 직원에게 이용자가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시민들이 도서관에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채우는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서들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바라는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일터이길 바라며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것을 조금씩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교류의 장이길 원한다.

사람 냄새가 그윽한 도서관, 좋은 시설과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사서', '자료', '이용자'가 같은 무게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는 주민들의 대화와 교류의 공간, '공공도서관' 사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을 꿈꾼다. (☺)

